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 유래는 1908년 2월 28일 미국에서 진행된 당시 유래없는 1만5천여명 여성들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집회는 화재로 숨진 여성노동자들을 기리며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미국 사회당이 1909년 처음으로 '국가 여성의 날'을 선포합니다.

당시 미국 여성노동자들은 하루 12~14시간 노동을 하면서 극심한 저임금에 시달렸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여성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노동제, 임금인상,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섭니다. 이런 현실은 당시 여성노동자들이 집회에서 부른 노래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행진하고 또 행진할 땐 남자들을 위해서도 싸우네.  
왜냐하면 남자는 여성의 자식이고 우린 그들을 다시 돌보기 때문이지.  
그런 우리가 마음과 몸이 모두 굶주리네.  
그러니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리고 장미도 달라"

굶주림을 채우기 위한 빵(생존권)과 권리를 상징하는 장미(참정권)가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 여성의 날에 장미를 연대의 의미로 서로 나누는 실천의 배경이 됩니다. "빵과 장미" (Bread and Roses)는 이후 여러 가수를 통해 대중들에게도 유명해지고, 미국 LA 청소노동자 투쟁을 소재로 한 켄 로치 감독 영화의 제목으로 널리 알려집니다.

## 한국, 성별임금격차1위 차별은 드러나야 없앨 수 있다

100년전 여성노동자들이 외쳤던 "equal work! equal pay!"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호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의 심각성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64.8%이며, 38개 회원국중 최하위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 '성별 임금공시제' (성별 임금 실태를 공개하는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 공개가 우선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관행처럼 '임금 비밀주의'가 굳어져 임금 격차를 부추기고, 비밀유지 강요 등으로 노동자를 통제합니다.

1910년 독일 여성노동운동가 클라라 체트킨이 여성의 날을 국제 기념일로 만들자는 제안했고, 이에 뜻을 같이 한 전세계 여성들은 각국에서 여성의 날을 기념합니다. 특히 1917년 러시아 여성노동자들이 3월 8일(당시 러시아 달력으로 2월 23일) 식량 배급 개선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황제를 폐위시키고 '2월 혁명'이 성공합니다.

한국은 1920년부터 나혜석, 박인덕 등의 여성운동가들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왔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맥이 끊깁니다. 국제연합(UN)은 1975년에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고, 국내에서는 1985년이 되어서야 공식기념행사가 열립니다. 2018년 국회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3월 8일이 법정 기념일이 됩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성별을 넘어 차별과 편견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이들이 투쟁하는 날입니다.

100년전 여성노동자들의 가난의 고통, 사회적 억압의 불만이 현재에도 사회 곳곳에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 괜찮은 차별"은 없습니다. 성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장애인과 비장애인, 민족과 인종에 따른 모든 차별과 폭력은 없어져야 합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현장에 우리가 모르는 차별이 숨어있지 않은지 살펴봅시다.



한국은 고용형태나 승진에 따라 임금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직급·직무에 따른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공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실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도 필요합니다. 노동계가 '모범 사용자'로서 정부가 공공기관에 먼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동향&전망

